“꼭지자른 수박 … 맛과 당도는 똑같아요”

농식품부, 적극 홍보 나서
유통비 줄여 年 627억 경제효과
“소비자들 신뢰성 높이려면 꼭지 1㎝→3㎝ 늘려야” 지적도

기존
T자형 꼭지수박

기존의 T자형으로 자른 수박꼭지와 꼭지를 완전히 제거한 수박.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실시한 ‘수박꼭지 절단 유통개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박꼭지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일반적인 유통기간내에서 꼭지부착 여부에 따른 수박의 경도, 당도, 과육의 색 변화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경후
꼭지 제거 수박

정부가 추진 중인 꼭지 절단 수박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선 유통 관계자는 물론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유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꼭지의 길이를 현재의 1㎝보다 긴 3㎝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협 판매장 관계자와 중도매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꼭지 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 관련 시장 관계자 협의회’를 갖고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 등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꼭지 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 관련 시장 관계자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중도매인단체와 도매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상당수 유통인들이 꼭지 절단 수박 유통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꼭지자른 수박 유통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지뿐만 아니라 산지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꼭지 절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티(T)-자’ 수박꼭지 유통이 수확·운송 등의 노력이 더 들고, 유통중 꼭지가 떨어지면 정상 판매가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꼭지절단으로 바뀔 경우 연간 344억~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박은 꼭지상태에 따라서 신선도를 판단하며, 꼭지가 갈색으로 변한 수박은 품질이 낮다는 소비자 인식에 따라 꼭지 자른 수박의 유통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수도권 등 농협의 주요 판매장에서 수박 꼭지 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에 따라 T자형 꼭지를 자른 수박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식품부는 수박을 유통하는 산지농협에서 1차로 비파괴당도선별기 이용, 당도 11 브릭스 이상의 특품으로 선별·출하했으며 2차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파괴당도 체크를 실시해 품질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꼭지 절단 수박의 경제적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꼭지 자른 수박’을 전국의 주요 농협 판매장에서 확대 공급에 들어갔다. 또 주요 대형 유통업체 3개사의 19개 매장에선 6월부터 2주일간 시범 판매를 벌였다.

농식품부는 시범판매 결과 꼭지 자른 수박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반응은 예상보다 적었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 등 체계적 대책을 추진한다면 조기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의 반응은 곱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소비자들이 조금만 달지 않으면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꼭지 자른 수박은 아직까지 고객들의 주요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범 판매 기간에 꼭지 자른 수박을 팔았던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티자 꼭지 수박과 꼭지 자른 수박을 동시에 판매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서인지 티자 꼭지 수박에 고객이 더 몰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 오래된 재고가 아닌지 물어보는 고객이 많았으나, 꼭지 자른 수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맛을 보고는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꼭지 절단 수박의 유통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농협은 시범매장과 일반매장의 수박판매를 분석한 결과 꼭지 자른 수박 도입에 따라 매출하락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꼭지 자른 수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도매시장과 유통업체에서도 하루빨리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은 전국의 주요 농협하나로마트에 꼭지 자른 수박을 확대 공급하고, 전국단위 할인행사와 삼복 특별 판촉·시식행사 같은 후속 마케팅을 지속 전개하기로 하는 등 ‘꼭지 자른 수박’ 유통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유통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을 확산시키고, 소매유통 이외 도매시장 등에 적용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도 실시하는 한편 수박의 ‘농산물 표준규격’도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식문화 스토리 담은 진공쌀 홍보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쌀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주식인 쌀과 곁들여 먹는 김치 등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식문화 스토리를 담은 진공쌀 포장품을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

쌀과 김치·쇠고기(한우)·차(茶) 산업 연계를 통해 우리 쌀의 가치를 제고하고 쌀 소비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진작시켜 밥과 김치 등 우리 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주요 홍보내용은 쌀의 경우 우리 민족에게 식량을 넘어 민족의 영혼이 깃든 영물로 장기적으론 국민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 김치는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점 등이다.

쇠고기(한우)는 과거에 특별한 경우에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이며 삼국시대 이후 우리 대중문화로 발전해 온 차(茶)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음식문화를 알리는 대표 주자란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쌀의 가치를 알려 소비자의 사랑과 소비 촉진으로 이어 가겠다”며 “양곡표시 부정유통 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전남 4월 어업생산량 16만1746t … 20% 증가

전국 생산량의 60% 차지

전남 지역 올해 4월 중 어업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전남 어업생산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16만1746t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만7907t, 20.9%가 늘어났다.

천해양식어업이 15만5054t으로 지난해보다 2만9천252t이 증가하면서 전체 어업생산량도 1년전보다 많아졌다. 내수면어업도 598t으로 지난해 4월보다 83t, 16.1% 증가했다.

반면 일반해면어업은 6094t으로 지난해 4월보다 1429t, 19% 감소했다.

전남지역 4월중 어업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의 60.1%를 차지했으며 특히 천해양식어어업은 74.8%에 달했다.

일반해면어업의 주요 감소 어종은 젓새우류·참조기·멸치 등이며, 주요 증가 어종은 삼치류·낙지류·갑오징어류 등이다.

천해양식어업의 주요 증가어종은 다시마류·미역류·파래류 등이며, 주요 감소 어종은 김류·조피볼락·바지락·굴류 등이다. 내수면어업의 증가어종은 뱀장어·메기·게류 등이며, 감소 어종은 붕어류·미꾸라지류·향어 등이다.

한편, 어업생산동향조사 공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 : //kosi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름 제철 과일 수박·참외 가격도 상승세

재배 면적 줄고 생육 환경 나빠져

대파와 배춧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제철 과일로 대표되는 수박 소매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5일 현재 수박 전국 평균 소매가격(개당 8㎏·상품 기준)은 1만4568원으로 작년동기의 1만2810원에 비해 13.7% 올랐다. 이는 올해 수박 재배면적이 약간 줄어든데다, 5월부터 일교차가 커진 날이 많아지면서 생육환경이 예년보다 나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T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수박의 경우 일교차가 크지 않아야 잘 자란다”며 “그러나 올해에는 그렇지 않아 생육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10㎏ 상품을 기준으로 한 토마토 도매가격도 1만2709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825원)보다 7.5% 상승했다.

10개들이 참외의 전국평균 소매가격도 1만6839원으로 작년동기의 1만6515원보다 2.0% 오르며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참외는 제철을 맞아 수요가 많아지겠지만 주산지인 경북 성주지방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그 가격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내다봤다.

aT 관계자는 “수박을 비롯한 이들 제철 과일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최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에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생육이 잘될 수 있는 날씨가 많아진다면 공급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쌀·밭 직불금 내달 10일까지 신청하세요

가뭄 등 영향 25일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 등을 감안해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25일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최근의 가뭄 확산과 농번기 일손부족 등으로 직불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올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6월15일에서 7월1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이 연장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